

“여순사건 71년...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올하는 꼭 제정돼야”

특별법 제정운동 주역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30여년째 항쟁 추적...진실규명 범시민회의 등 주도 “군대의 본분 지킨 국가명령 거부, 역사 재평가 필요 특별법 계류 17년...올해 넘기면 정치일정에 매몰 우려”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은 민간인 등 1만1000여명이 희생된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비극이다. 희생자들은 좌·우익으로 낙인찍혀 총살당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주검이 됐다. 좌·우익, 협조·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손가락 총’으로 지목당한 사람은 즉결 처분됐다.

그 참상은 사진기자 이경모, 미국 중군 사진기자 칼 마이던스의 영상에 담겨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71년 동안 여순사건 희생자들은 죽은 역사에 새겨지지 못했다. 지난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이 펼쳐졌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사연)의 이영일(60) 소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올해는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발의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소장은 “올해를 넘기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일정에 매몰돼 또다시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특별법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으로 채택해 법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정쟁 등으로 중요 법안

? 여순사건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며 무력충돌이 빚어졌다. 이른바 제주 4·3이다. 국경경비대는 제주도 소요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 진압 명령을 내렸다. 14연대 병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국민을 진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명하며 무기를 들었다. 당시 정부는 군대 내에 침투한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보고 진압에 나섰다. 군경의 진압작전과 14연대 등의 교전 등으로 1만 1000여명이 희생됐다.

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 139명(중복자 제외)이 참여했다. 이들이 발의한 명칭 유사 법안만도 5건이다. 애초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이래 18대, 19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됐으나 입

기만으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17년째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제주 4·3은 2000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돼 모역과 공원이 조성되고 기념관이 세워지는 등 정부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가 작성돼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조사하는 일입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나와야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요. 진정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은 이런 토대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이 소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차원에서 여순사건을 집중 추적해왔다. 현재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여순항쟁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범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여순사건이란 말조차 금기어로 여겨지던 시절에 여사연은 여순사건 50주년(1998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 중심에 이 소장이 있었다.

“군에서 ‘빨갱이XX’라며 모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때 여순사건에 대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도대체 여순사건이 뭐길래 나를 빨갱이로 부르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1995년 여수여천지역사회연구소를 꾸렸을 때 여순사건을 끊임없이 일깨워준 후배가 있었습니다. 운명적으로 여순사건과 마주한 것 같아요.”

이 소장은 여순사건을 반공적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염된 시각으로 사건을 보면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와 ‘인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크게 달했던 반공이데올로기, 제주 4·3, 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맥락에서 여순사건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군대의 본분을 지킨 거부였습니다. 민간인에게 총부리를 겨누려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부정이었지요. 군이 명령에 따라 국민을 학살한 제주4·3, 광주 5·18과 이 대목에서 깨를 달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지요.”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동신지적총동문장학회에 장학금 지급 감사패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는 최근 동신지적총동문장학회(회장 박병춘·왼쪽 세번째)로부터 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받고, 감사의 뜻을 담아 박병춘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동강대 제공>

광주상무스타치과병원, 기업 진료협력병원 협약



광주상무스타치과병원(대표원장 김운규)은 최근 (주)사산(대표이사 엄홍섭), (주)성암, (주)삼양아스콘 등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협력병원 협약을 맺었다. <상무스타치과병원 제공>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 지질동맹경화학회 최우수 논문상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최근 한국지질동맹경화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 논문은 ‘조기에 중재술을 시행하는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혈색소와 중성구와 림파구 비율을 이용한 조기 위험도 평가’라는 제목으로 2018년도 한국지질동맹경화학회지 7권 1호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61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근경색증 환자 중에서 혈색소가 남자 13mg/dL, 여자 12



mg/dL 이하인 빈혈의 경우와 중성구·림파구 비율이 4.42 이상인 경우에 심장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의 총괄책임자인 정명호 교수는 235명의 KAMIR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과제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나공주 지리산공원 본부장 취임



나공주(57) 지리산 국립공원본부 본부장이 21일 취임했다.

광주 출신인 나 본부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뒤 지난 1987년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했다. 지리산남부사무소장, 지리산 사무소장, 공단 본부 자원보전처장, 탐방지원처장, 국립공원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나 본부장은 “공원 관리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차용훈 광주고 동문회장 취임



차용훈 조선대 공과대학 교수가 31대 광주고 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차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올해 동문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60년사 간행, 동문기념관 설립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동문들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고(22회), 조선대 공대를 졸업한 차 회장은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기계공학)를 취득하고 조선대 공대 학장을 역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가부 장관상

전화 친절도 우수기관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하는 전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8년도 청소년전화 1388’ 친절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21일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전국 2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해피콜 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초 수신 상태, 상담진행 및 응대 태도, 끝맺음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전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화 친절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3.1점 오른 100점 만점에 96.1점(상반기 96.2, 하반기

96.1)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진 전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상담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 도내 청소년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9년 1월 재단법인 전남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통합 출범한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기관이다.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청소년 상담·보호·지원·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8 독립선언 산실 도쿄YMCA 모금 운동

독립선언 100주년...자료실 재개관·영상물 제작 사업비 마련

100년 전 3·1운동의 마중물이었던 도쿄 2·8 독립선언의 산실인 도쿄(東京) 제일 대한YMCA(이하 도쿄YMCA)가 자료실 재개관과 기념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해 일본에서 모금 활동을 벌여 주목된다.

20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쿄YMCA는 올해 2·8독립선언 100주년을 앞두고 작년 가을부터 관련 사업을 위해 10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다. 2·8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조선인 유학생 600여명이 대담하게도 식민지 시대 지배국의 수도인 도쿄의 ‘제일 본도요조선YMCA회관’(현 제일대한국

YMCA회관)에 모여 조선의 독립을 외친 역사적 사건이다.

도쿄YMCA는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료실을 운영하며 2·8독립선언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의 회관 앞에는 기념비가 설치돼 당시 독립선언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도쿄YMCA는 2008년 독립선언 90주년을 기념해 보존처의 일부 도움을 받아 건물 꼭대기 층인 10층 한 칸에 2·8독립선언 기념자료실을 만들었지만 공간이 넓고 협소해 현재 2층의 새 공간으로 이전해 재개관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이윤곤·이미화씨 아들 오리(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회협력팀)군, 김윤길·박명희씨 딸 초민양=26일(토) 오후 2시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
- ▲최숙주(전 곡성군청 기획실장)·신정숙씨 차남 유선(행정안전부)군, 지수길·김영선씨 장녀 나은(통일부)양=26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오벨리스 웨딩홀.

중친회

-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이화원례회(회장 이보희)=22일(화)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 ▲순천박씨 문봉공파 정기총회(회장 박종길)=25일(금)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순천로120(승평회관 4층) 총무 박형순 010-6620-7507.
- ▲경주배씨광주중친회신년하례회(회장 배경석)=29일(화) 오후 6시 광주시 금남로 5가 유명회관 010-8623-4949.

- ▲동래정씨 광주전남 총회원 총회(대중중 임사회장 정진홍)=30일(수)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대의동 10-1 무등고시학원 앞 뚝이레회관 상무이사 정영선 010-3609-2523.
- ▲고씨 광주·전남총문화(회장 고정주)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2월9일(토) 오전 11시 KT정보통신센터4층(광주동구정영) 010-8601-3369.

알림

- ▲대한웰다임협회광주지회 연명의료 결정법 무료강좌=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봉사 매주 화·목 오후 2시~4시 광주시 남구 서동로2번길3(출장가능) 062-511-0030.
- ▲일기정량지침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읍·우·울·불안·

- 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프로그램 다양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료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모집

- ▲광주불교문화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3월31일까지(3월12일 개강), 대학(기초교리):매주 화 오후 2시~7시, 대학원(경전공부):매주 수 오후 2시~7시, (사)광주 불교교육원 사무국 062-228-9098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연령 제한 없음.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조류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연속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푸른길동문회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실천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卍	
본관 3층 12호 故조길환 님(남/82세) 子/子婦: 조재권/류순덕, 영기/성오주, 재림/조영순 女/婿: 조숙희/김신창, 순자/김동일, 정화/영양득 未亡人: 유갑순 ◇입관: 1/21 13:00 ◇발인: 1/23 08:30 ◇장지: 담양대덕연매 ◇연락처: 250-4412	본관 2층 7호 故서순임 님(여/81세) 子/子婦: 안경성, 안만실/송신 女/婿: 안선임/이명철, 순미/허형, 순옥/박승규, 未亡人: 유갑순 ◇입관: 1/22 11:00 ◇발인: 1/23 08:00 ◇장지: 영락공원회 ◇연락처: 250-4407
본관 3층 10호 故황영웅 님(남/78세) 子/子婦: 황호기/곽계선 未亡人: 최정심 女/婿: 황호영/이원희 ◇입관: 1/22 11:00 ◇발인: 1/23 08:00 ◇장지: 영락공원회 ◇연락처: 250-4410	본관 2층 9호 故김길순 님(여/94세) 子/子婦: 이남수/조옥희, 관수 女/婿: 이영자/박영환, 관순 ◇입관: 1/22 10:00 ◇발인: 1/23 13:00 ◇장지: 곡성오산연회 ◇연락처: 250-4409
신관 4층 402호 故정종례 님(여/89세) 子/子婦: 노병문/박경자, 석문/김현숙 女/婿: 노원자/김재호, 향숙/홍기용, 향남, 정숙 ◇입관: 1/21 14:00 ◇발인: 1/22 09:00 ◇장지: 함평학교연선연매 ◇연락처: 250-4474	본관 4층 VIP장공 故정혜순 님(여/84세) 子/子婦: 서성일/백성정 夫君: 서병량 女/婿: 서애신/최남식, 성희/김석순, 성미/김윤수 ◇입관: 1/21 15:00 ◇발인: 1/22 09:30 ◇장지: 무안동민연선연매 ◇연락처: 250-4413
본관 지하1층 5호 故장세준 님(남/85세) 姪子: 정호익, 익대 未亡人: 오길임 ◇입관: 1/22 15:00 ◇발인: 1/23 08:00 ◇장지: 장성삼계연회 ◇연락처: 250-4405	본관 지하1층 3호 故이오순 님(여/85세) 姪子: 이대형 ◇입관: 1/21 10:00 ◇발인: 1/22 08:00 ◇장지: 영락공원회 ◇연락처: 250-4403
신관 3층 302호 이문혜 님(남/78세) 子/子婦: 이대성/김준희 未亡人: 김경순 女/婿: 이미리/김원모, 윤희/이우성 ◇입관: 1/21 11:00 ◇발인: 1/22 08:00 ◇장지: 담양장평연선연매 ◇연락처: 250-4472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영관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	